

# 한국회계학회 심포지엄

## 상법상 배당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상법에서는 불합리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하여 기업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배당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K-IFRS 적용 전에는 종속회사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K-IFRS 적용이후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종속회사가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기업은 종전과는 달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K-IFRS에서는 모든 기업이 작성하는 공통의 재무제표가 없다.

배당은 당기순이익을 원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K-IFRS 도입이후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은 2010년의 46.91%에서 2015년 현재 77.11%로 크게 증가하여 상당수의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는 주재무제표가 되어 여러 지표에서 주요 재무제표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11년 상법개정과 IFRS 도입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상황 및 개선점과 발전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학회 회원분들과 기업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6월 27일(월) 오후 3:00~5: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 최 : 한국회계학회, 글로벌금융학회

□ 프로그램

사회자: 조용언(동아대학교 교수)

시간	행사순서	발표자
15:00~15:10	개회 인사 및 축사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 양채열 (한국재무학회 회장)
15:10~15:40	별도재무제표는 배당기준 재무제표가 될 수 있는가? 강선민 · 황인태 (중앙대)	황인태 (한국회계학회 회장)
15:40~15:50	Coffee Break	

15:50~17:20	토 론	<p>강경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제도팀장)</p> <p>김 구(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법제팀장)</p> <p>문준우(신경대 교수 /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p> <p>변진호(이화여대 교수 / 한국재무학회 선거관리위원장)</p> <p>이한상(고려대 교수 / 한국회계학회 재무분과위원장)</p> <p>강선민(중앙대 교수 / 한국회계학회 재무이사)</p>
17:20~17:30	폐회사	황인태 (한국회계학회 회장)

□ 오시는 길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 대표전화 : 02-6050-3114

▪ 지하철

-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 방향 5분 거리
-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YTN 방향 5분 거리

□ 안내말씀

- 참가비는 무료이며,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학회 이메일(kaa363@chol.com) 로 참가신청(참가자 성함, 소속, 연락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참가신청 : 학회 사무국

전화 : 02-363-1648 / 팩스 : 02-363-1649  
 이메일 : kaa363@chol.com / 홈페이지 : www.kaa-edu.or.kr